

“불신의 옷을 벗으라!”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때

오늘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우리가 올바로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항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불신 가운데 헤매고 있는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정신병원 원장에게 어떻게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구분하느냐고 물었다.

“먼저 욕조에 물을 채우고 욕조를 비우도록 숟가락과 찻잔과 양동이를 줍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숟가락보다 큰 양동이를 택하겠군요.”

그러자 원장 웃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욕조 배수구 마개를 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정상적인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한 일인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데도 그 길에 다다르지 못할 때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준이 되는 복극성을 보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눈에 잡힐 듯한 그 별이 가도 가도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힘이 듭니다.

또한 밝은 햇빛이 비치는 낮이 되어 그 별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별의 존재가 사라진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빛이 보일 때는 믿음도 있어 보이지만,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도 사라집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만의 일은 아닌 듯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며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아니,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면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동일하게 가장 명백한 불신앙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민수기 14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되는 시간이요, 또한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원망이 동시에 존재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적이었던 이유는, 이들이 늘 가시적으로 예배하고 의지할 것을 원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늘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속히 임하지 않으면 즉각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야말로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잉거솔(Ingwersoll)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강연에서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날도 여느 때와 같이 무신론 강연에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연이 절정에 이르자 갑자기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를 풀더니 하나님에 대한 도전장을 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소. 나는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오.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형벌을 내리시오.”

그리고 그는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5분이 지났는데도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만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강연장 뒤편에 있던 한 노인이 서서히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우면서도 감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한 그리스도인이오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오 단지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했을 뿐이지요.”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떠나서 거스를 때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까지 하셨던 분이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침묵하셨소 그분의 침묵은 곧 당신이 그의 자녀가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하여 참고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참으시는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재철 목사님이 쓴 [비전의 사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하라의 불꽃』의 저자 샤를 드 푸코는 프랑스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 가톨릭에 귀의해 수도사가 되었고 사하라 사막에서 원주민을 위해 선교하다가 원주민의 총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그 대답은 아마 제각기 다를 것입니다. 푸코는 이렇게 자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참으로 우리의 정곡을 찌르는 답변입니다.

평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얼마나 자주, 또 쉽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법칙보다 세상의 법칙을 더 신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말하는 것만큼 매사에 그 사실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건은 현존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부터 시작됨을 잊어선 안 됩니다.

불신앙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있다!

불신앙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지만 결국에는 믿음 있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불신앙이 반복되면 하나님의 우리를 버리시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벼림을 받는 순간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2절을 보세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참아 주시지만, 고의로 불신앙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나 참아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교역자들과 직원들을 교육할 때 하는 말입니다.

“실수가 한 번 두 번일 때는 excuse가 됩니다.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용납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실수는 태만 그리고 고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고의적인 불신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불신앙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탐지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을 불신한 이유는 그 땅의 백성이 너무나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불신앙의 정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있는 두려움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방향을 잊게 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을 분산시켜 버립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드는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에 의해 우리가 감염될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신앙으로 떨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책 [목마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347년 10월, 제노바 함선 한 척이 흑해를 거쳐 이탈리아 메시나 항에 들어왔습니다.

역병에 감염된 쥐 몇 마리가 밧줄을 타고 육지에 상륙했고, 이것이 흑사병의 시작이었습니다.

5년 만에 유럽 인구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이 목숨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00년 후인 1665년 말까지 런던에서만 무려 1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매주 7,000명 이상이 목숨을 잊은 셈입니다.

그러다 혹독한 추위가 몰아닥쳐 병균이 몰살당하고 나서야 죽음의 행렬은 끝을 맺었습니다. 흑사병은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두려움의 역병이 돌기 시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고 자신의 본능에 의해 결정하고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불신앙의 죄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역병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의심'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자손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두려움이 침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에게 의심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당신을 예배하도록 부르셨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불신양과 겸손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보고하는 것을 불신양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너무나 순진하고 나약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보고 말입니다.

우리들은 너무 약합니다. 그들은 너무 크고 장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소유하기에는 우리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겸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약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단지 겸손을 가장한 약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양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민수기 14장 8절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약함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약함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함을 보이라!"고 말입니다. "겸손"은 지나온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홍해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깟 아낙 자손들을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언제 우리들의 힘으로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까?

그 분이 쓰셨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 합니다. "His -Story"를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오늘도 그 분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묵묵히 그 곳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때로 햇볕이 너무 강해 북극성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환경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힘이 드십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서 10명의 불신앙과 2명이 믿음이 분명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심판의 분깃점이 있습니다.

그 분기점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또 하나의 교묘하게 위장된 사람들의 불신앙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평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는, 다른 사람을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장 불신앙적인 문제는 누군가를 탓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멈추는 순간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신뢰가 끝나는 순간 지금까지 신뢰해 왔던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에게 부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실 때, 그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끝나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빛을 발하고 믿음이 증명되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때, 꼭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에, 큰 난관들이 닥쳐왔을 때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동에서 '만나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다수를 쫓아냈습니다.

신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소수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때 쫓겨나지 않았다면 결코 잠실 별판에 천막을 치는 용기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천막에서 시작한 교회가 건물을 사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던 때,

갑자기 86 아시안 게임선수촌 부지로 선정되면서 교회가 헐리고 갈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때 교인들은 허허 별판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벼려진 것 같았던 빼대만 남은 건물에서 만나교회는 최고의 전성기를 경험합니다.

분당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던 때, 사람에 대한 시험이 들었습니다. 목회만 하시던 고 김우영 목사님이 교회 정치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중환자실에서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1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바이러스,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침투하려는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언제까지 참으시지는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분기점에 와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한 사람이 중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가락으로 방향을 지시하고 서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지나갑니다.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두 사람이 중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가락으로 방향을 지시하며 서 있습니다. 역시 지나가던 사람들이 두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이제 세 번째 실험을 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손가락으로 지시합니다. 그러자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여 세 사람이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보기 위해 서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사람만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사람 셋만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